



녹색성장 전략 중간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약속 실천 2010년 5월

머리말

우리 일생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가 이제는 물러서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다. 전세계 정책 결정자들은 이제 3종의 아주 미묘한 도전을 맞고 있는데, 기록적인 실직률, 지속 불가능한 재정적자 및 저성장이다. 이러한 도전은 모두 환경과 기후에 대한 우려가 경제정책의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맥락에서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정책 묘기"를 부려서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를 위한 적절한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성장 엔진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성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시원한 해답은 없지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는 두 가지인데, 곧 혁신과 녹색성장이다.

이렇게 힘든 맥락에서 지난 해 OECD 장관회의에서 34개국 장관들이 내 놓은 녹색성장 전략은 비전 있는 결정이었다. 그 요지는 선명했는데, 성장은 녹색과 병행할 수 있고,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OECD의 여러 전문분야에 걸친 경험을 생각할 때 OECD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보겠다.

OECD는 수십 년 동안 경제적 측면에서 환경악화와 기후변화를 다루어 왔다. 우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강력한 녹색성장을 이루려면 광범위하고 통합된 정책 혼합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패키지에서는 시장의 기능이 큰 몫을 차지한다. 가장 효율적인 도구의 일부로는 적절한 가격 책정,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 장려, 그리고 화석연료 지원금 같은 유해한 정책 제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옵션에 든다. 또한 보다 폭 넓게 혁신을 촉진할 경우 새로운 녹색 산업, 비즈니스, 직업 창출 면에서 큰 기여를 할 것이다.

OECD의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주요 장애물이 무엇인지 파악될 것이다. 여기서는 또한 보다 더 진한 녹색 경제로의 변천을 보장하는 실제적인 정책 도구가 개발될 것이다. 이 전략을 통해서 OECD와 신흥 경제권은 연대 및 개별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지속가능한 녹색 경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도움 주고 받으며 그 내용을 서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중간 보고서에는 앞에 놓인 도전과 기회를 보다 잘 파악하는 면에서 최초의 통찰력이 제공되어 있으며, 위기의 맥락에서 취해진 조치가 일부 평가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OECD와 협력 국가들의 작업의 결과로서 여기에는 비즈니스와 민간 사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많이 참작되어 있다. 2010년 장관회의야말로 이 전략을 펼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녹색" 길("green" way)을 통한 성장과 복지 촉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

중간보고서 개요

과거의 경제성장 패턴으로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들다는 우려와 미래 기후 위기의 잠재성에 대한 심각성이 동시에 증폭되면서 환경과 경제를 더 이상 따로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동시에 금융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보다 더 환경 및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차원에서 회복과 새로운 성장을 조장하는 쪽으로 정책이 개입할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여기서 필수적인 전략적인 비전이 있다면 위기 탈출 기간과 그 이후에 걸쳐서 정부가 시행할 정책이 경제효율성, 환경건전성 및 사회적 형평성 입장에 비추어 가장 적절해야 하며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녹색성장이란?

이러한 맥락에서 녹색성장은 경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환경피해, 생물다양성의 손실 및 지속불가능한 천연자원 사용을 방지하는 한 수단으로서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녹색성장은 많은 국가들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발판으로 삼고 있으며, 그 목표는 새로운 녹색 산업, 직업, 기술을 개발할 기회를 비롯하여 보다 깨끗한 성장 원천을 파악하면서 보다 더 녹색 경제로의 변천과 연관된 구조상의 변화를 관리하는 데 있다. 환경 질, 천연자원 회소성 및 물질적인 복지를 넘어서 삶의 질을 포함한 녹색성장으로서의 발전을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와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녹색성장 정책은 경제전반과 각 부문 차원에서 수요공급 양면을 아우르는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전략을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녹색성장은 위기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으로 그치지 않고 생산공정과 소비자 활동을 위한 혁신적인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녹색성장 전략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녹색성장은 모든 국가에 해당되지만, 그 정책과 접근방법은 특정 국가의 상황에 맞추어 발전할 것이다. 대부분의 신흥 및 개도 국가들의 으뜸가는 우선순위는 아직도 빈곤 퇴치, 기본 교육 제공, 식량 안전의 확보, 상하수도 설비와 같은 필수 서비스 제공이다. 동시에 이들 경제의 큰 부분은 천연자원에 의존하며 기후변화의 영향, 특히 식량공급 안전과 수자원 면에서 자주 취약한 상황에 놓인다. 그런 만큼 이 국가들의 경제발전은 자국 경제의 필수적 기반인 천연자원의 시기적절한 활용과 건전한 관리에 좌우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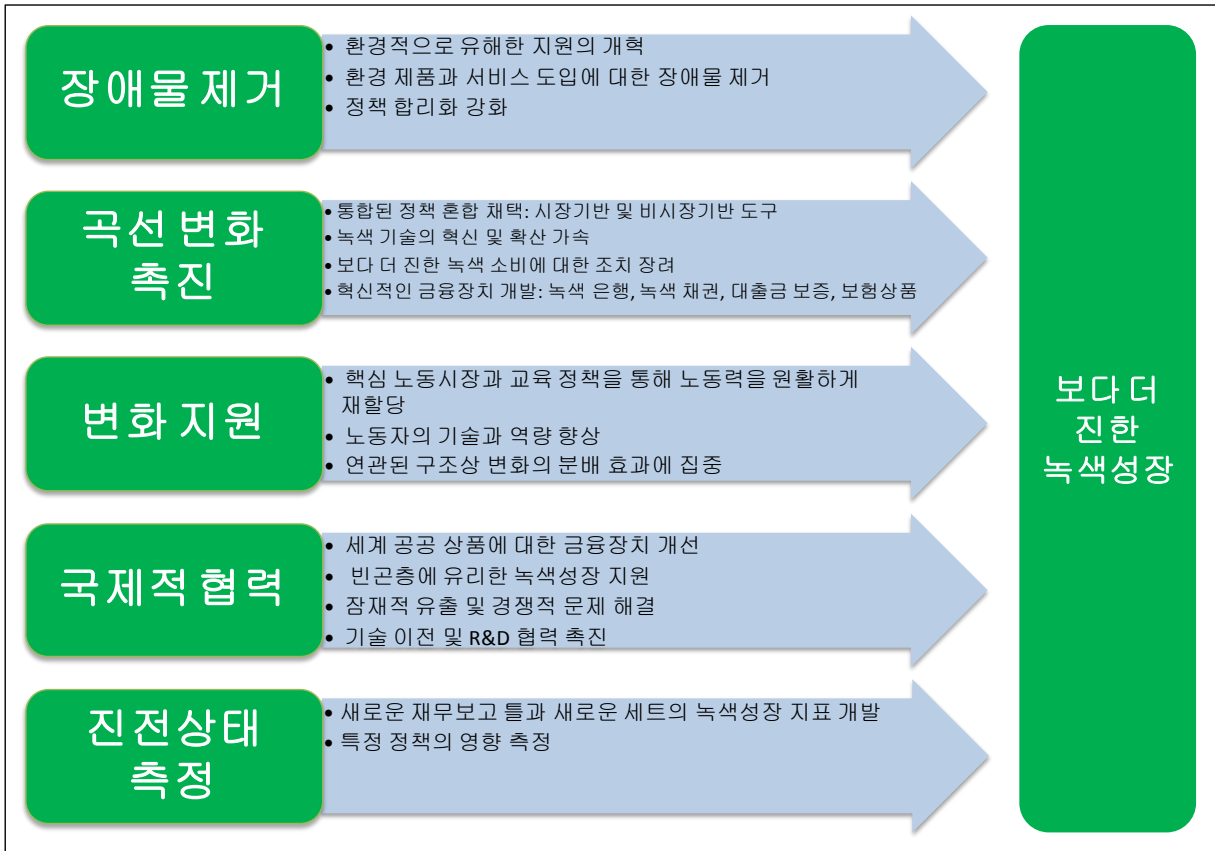
OECD는 녹색성장 전략 종합보고서를 2011년 장관회의에 제출할 터인데, 그 보고서는 정부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다 더 녹색 경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구체적인 도구와 권장사항을 상세하게 보여줄 것이다. 2010년도 중간 보고서는 정책결정자들이 보다 더 녹색 경제로 전환함에 있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많은 주요 쟁점의 예비적 결과를 크게 부각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2011년 종합 보고서에서 다루게 될 광범위한 쟁점의 하위 세트만 반영하고 있다. 본 전략은 녹색성장 정책들이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통합, 기술협력 및 희귀한 환경자원에 대한 압력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틀을 개발할 것이다. 본 전략은 녹색성장 정책들은 점증하는 녹색 보호주의의 근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줄 것이다.

보다 더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 생산과 소비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나?

녹색성장 정책은 정책 도구를 혼합할 필요가 있는 데, 여기에는 시장기반 접근방식, 규제와 기준, R&D 장려 보상 척도 및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보기반 도구가 포함된다. 세금, 천연자원에 대한 징수 또는 배출권 거래제도 등을 통해서 오염이나 희귀자원 남획에 적절한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정책 혼합의 한 중심 요소가 되어야 하며, 특히 투명한 시장 신호를 제공하려면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보다 더 진한 녹색 소비와 생산 패턴에 변화를 가져 오려면 시장 기반 도구들만으로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생산과 독성 화학품 사용 면에서 시장 실패의 결과로 가격 신호에 대한 반응이 약해지거나 일부 활동에 대한 완전한 금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규제가 따라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자발적인 수단과 에너지 효율성 평점 및 잘 설계된 환경표지제도와 같은 정보 기반 조치 등의 기타 접근방법이 구체적인 활동의 환경 영향과 청결한 대안의 가용성에 대한 소비자 및 생산자의 의식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혁신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은?

혁신은 녹색 경제와 고용 창출의 필수적인 동인이 될 것이다. 청정 기술 및 관련 지식의 개발과 확산을 가속화하는 정책은 정책 혼합의 또 다른 핵심 부분이 될 것이다. OECD 혁신전략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이는 폭 넓은 접근방식을 채택하는데, 녹색 활동에 종사하는 회사들에 대한 가격기반 수단 및 보상과 기본연구에 대한 공공 구매 및 자금지원이 포함될 것이다. 청정기술 거래 및 신규 업체들의 진입 장벽 제거 및 기업가 정신의 여건 개선은 필수적인데, 특히 신규 업체들이 보다 과격한 혁신의 대중을 이룬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혁신에 대한 다자간 협력이 보다 효과적이고 포용적일 필요가 있다. 본 전략은 이 쟁점을 다루면서 여러 국가에 걸친 협력, 자금지원 알선제도, 역량 구축 및 국제적 기술이전과 관련되는 도전을 검토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 에너지 기구(IEA)의 분석에 따르면 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및 기타 저탄소 기술을 더 발전시킬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잠재성의 활용이야말로 에너지 부문 녹색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보다 더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들이 이미 취한 조치는?

여러 국가들은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 패키지의 일부로 녹색 인프라에 공공 투자를 증가시켰는데, 특히 공공운송, 저탄소 에너지생산, 스마트 전력망, 공공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및 상하수도 인프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위기가 미치는 영향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 고위험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감안할 때, 정부들은 녹색 기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할 투자를 앞당기는 조치를 더 발전시킬 수 있겠다. 또한 일부 국가는 녹색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 R&D에 투자하고 환경관련 세금의 사용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경기부양 조치가 모두 환경에 좋은 것은 아니며, 일부 조치는 보다 전통적인 오염활동을 고착시킬 수 있는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중한 설계가 뒷받침하지 않을 경우, 일부 국가가 자동차 산업, 도로건설 투자, 자동차 폐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공한 대규모 지원이 개인 자동차 사용에 대한 보상을 증가시킴으로써 오히려 환경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전환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위기 문제를 떠나서, 보다 녹색 경제로의 변천을 저해하는 정책상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여기에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지원의 개혁, 환경 제품과 서비스 도입에 대한 장애물 제거 및 서로 상충되는 정책 수단의 합리화가 수반된다. 본 중간 보고서에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화석 연료 지원 개혁을 녹색성장 촉진과 관련하여 하나의 중요한 '원인' 전략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녹색화 농업지원과 관련된 최근의 발전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IEA 자료에 근거한 OECD 분석에 따르면 신흥 및 개도국에서의 화석연료 소비에 대한 지원금을 제거할 경우 2050년에는 세계적인 온실 가스 배출량이 일상적인 사업에 비교하여 10% 감소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경제권들의 경제가 더 효율적이 되고 정부 예산에 대한 재무부담이 줄어들며 경쟁 부분에 대한 지원에 따르는 잠재적으로 왜곡된 결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

녹색 세금이 할 수 있는 역할?

이 중간 보고서에는 또한 환경관련 세금, 징수 및 배출 거래 계획의 사용에 대한 최근 OECD 분석이 나와 있다. 이 계획의 사용이 OECD 와 신흥경제권 전반에 확산되고 있지만 녹색 세금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크다. 이 시장기반 수단을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할 경우 정부 수입의 한 중요한 출처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OECD 분석에 따르면, 산업국들이 모두 총 배출권 경매에 따른 세금 또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해서 2020년까지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20% 줄일 수 있을 경우, 2020년에 발생하는 수익은 국가들 전반에 걸쳐서 GDP 2.5%까지 증가할 수 있다. 탄소세 또는 배출권 경매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보다 더 왜곡적인 형태의 세제를 상쇄할 수 있으므로 복지 증가를 가져온다. 이러한 수입은 또한 개도국에서의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노력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보조금에도 충당될 수 있다. 이번 위기에 따른 정부 부채를 긴급하게 절감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입은 재정적자 저감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신흥경제권에서는 이러한 수입이 교육, 보건관리 및 빈곤 타파와 같은 기타 시급한 우선순위에 사용하는 재원이 될 수도 있다.



일자리와 기술은 어떻게 될까?

녹색성장을 통해 기술적 발전, 새로운 일자리 및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열리기도 하지만, 주요 정책상 도전 가운데 하나는 경제 부문 전반에 걸친 자본과 노동의 재할당을 원활하게 촉진하면서 그 결과로 따르는 조절비용을 최소화하는 문제이다. 경기부양 패키지 가운데 녹색 요소와 관련된 고용 잠재력을 부각시키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현재처럼 경기활동이 침체되고 노동 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고용 창출 면에서 단기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녹색성장으로의 이전을 가속시킬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고용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은 대부분의 녹색성장 시나리오에 걸쳐서 불확실하며 이것은 2011년 종합 보고서를 위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최초 OECD 분석에 따르면 부문, 회사, 지역/현지에 걸쳐 노동의 재할당이 상당하게 이뤄질 것이며 직업 기술 요건 면에서도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암시되고 있다.

2011년도 종합보고서에서 다룰 내용은?

이 중간보고서에는 위에서 강조한 쟁점을 다루는 1차 분석이 실려 있다. 2011년 보고서에서는 이것을 기초로 보다 광범위한 녹색성장 정책분야 전반에 걸쳐 정부 개입을 안내해주는 하나의 통합된 틀을 개발할 터인데, 이 정책 분야에는 재정, 혁신, 거래, 노동, 사회 정책 뿐 아니라 에너지, 교통, 운송, 수산업과 같은 핵심 부문이 포함될 것이다. 2011년 보고서는 국제 협력을 필요로 하는 핵심 쟁점을 다루게 되는데, 여기에는 지구온난화 공공재료에 대한 (예를 들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처하도록 지원하는) 금융지원, 빈곤층에 유리한 성장 지원, 국제적 기술 이전, 잠재적 유출(leakage) 및 정책 활동의 경쟁적 효력에 대한 대처 방안이 포함될 것이다. 새로운 재무보고 틀(accounting framework)과 새로운 세트의 녹색성장 지표도 마련해서 곳곳에서 차이를 파악하고 과정을 측정하게 될 것이다.

추가 참조 문헌

- “A Framework for Assessing Green Growth Policies (녹색성장 정책평가 틀)”, De Serres, A, Murtin, F and G. Nicoletti, OECD 경제부 실무 보고서, OECD (2010년 출간예정), 파리.
-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2009: Monitoring and Evaluation (2009년 OECD 회원국가 농업정책: 감독 및 평가), OECD (2009), 파리.
- “Competitive Cities and Climate Change (경쟁적 도시 및 기후변화)”, Kamal-Chaoui, L. and A. Robert (편집), 지역별 발전 실무 보고서 2호, OECD (2009), 파리.
- Eco-Innovation in Industry: Enabling Green Growth (산업계의 에코 이노베이션: 녹색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OECD (2010), 파리.
- Economic Policy Reforms 2010: Going for Growth (2010년 경제정책개혁: 성장을 목표로), OECD (2010), 파리.
-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0: Scenarios and Strategies to 2050 (2010년 에너지 기술 전망: 2050년까지의 시나리오와 전략), 국제 에너지 기구 (2010), 파리.
-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 (2030년까지의 환경 전망), OECD (2008), 파리.
- “Greening Jobs and Skills: The Local Labour Market Implications of Addressing Climate Change (녹색 직업 및 기술: 기후변화 해결에 대한 현지 노동시장의 의미)”, Martinez-Fernandez, C, C. Hinojosa, G. Miranda., 실무 문서, CFE/LEED, OECD (2010년 2월 8일), 파리.
- Ministerial Report on the OECD Innovation Strategy: Fostering Innovations to Strengthen Growth and Address Global and Social Challenges – Key Findings (OECD 혁신 전략에 대한 장관 보고서: 성장 강화 및 세계적, 사회적 도전에 맞서기 위한 혁신 촉진), OECD (2010년 출간예정), 파리
- OECD Key Environmental Indicators (OECD 핵심 환경지표), OECD (2008), 파리
- Review of Fisheries in OECD Countries: Policies and Summary Statistics 2008 (OECD 회원국의 수산업 검토: 2008년 정책 및 개요 통계), OECD (2008), 파리.
- Subsidy Refor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olitical Economy Aspects (지원금 개혁 및 지속가능한 발전: 정치적 경제 양상), OECD 지속가능한 발전 연구, OECD (2007), 파리.
-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and Options for Global Action beyond 2012 (기후변화 완화의 경제: 2012년 이후의 세계활동 정책과 옵션), OECD (2009), 파리.
- World Energy Outlook 2009 (2009년 세계 에너지 전망), 국제 에너지 기구 (2009), 파리.

추가 정보

이 팸플렛은 다음 주소에서 여러 언어로 제공 됩니다 www.oecd.org/greengrowth
연락처: greengrowth@oecd.org